

'2600년 불교사' 통해 正法 실천 방안 모색

불교인재원, 9월 11일 대중강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006년 불교, 대중 강좌로 이해하는 길' 강좌를 3차에 걸쳐 진행한다. 강좌 주제는 △1차 인도, 티베트 및 남방불교의 역사 조사 △2차 중국 불교와 선종의 법맥 이해 △ 한국불교의 종지종풍 근원 파악 등이다.

1차 강좌는 9월 11일~11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서 열린다.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의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특강을 시작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의 '아쇼카 대왕과 목갈라나 쾃따 및사',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의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대론' 등 총 12회 실시된다.

또한 2차 강좌에서는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부터 간화선 창시자 대혜종고 등 살펴봄, 3차에서는 이차돈 순교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주요 고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2차와 3차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8.25 합의, 南北불교 교류 활성화 '청신호'

[해설] 남북 공동 합의가 불교 대북사업에 미칠 영향

8.25 남북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극도로 치닫던 남북 정세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그동안 침체돼 온 불교계 대북사업의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월 25일 새벽 0시 55분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6개 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불교계가 주목할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9월 초 적십자 실무 접촉 △민간교류 활성화의 조항이다.

목함지뢰 테러와 포격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해소와 더불어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활성화도 함께 명시한 것은 북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불교계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조계종·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 통일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한 것도 분위기가 반영됐다. 불교계 통일 전문가들 역시 "5.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 사업에 새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그친 데 아쉬워하는 여론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 합의 내용이 실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불교계는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민간교류 활성화 발표에 맞춰 적극적 교류 사업을 펼칠 거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주본) 박재산 사무국장은 "남북관계 긴장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 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침체됐던 남북불교교류도 재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민간교류는 당국 간 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 대북협력단체들도 올해 하반기 활발한 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민주본은 올 하반기 예정된 남북불교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9월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제와 10월 금강산 신계사 북원8주년기념 남북합동법회 추진을 중심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 북녘 불교문화재 보수 사업 등도 계획 중이다.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 약속 중단된 불교 교류 기대 '고조' 민주본, 9, 10월 경 방북 추진

평불협도 지원 경로 탐색 나서 "조건없는 보살행 통일 앞당겨"

아울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도 북한지원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신창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측에 안파싸움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연락이 되면 사전협의 후 약 2억 원 분량 안파 싸움을 북한 지역에

보낼 것"이라 밝혔다. 평불협은 2004년에 도 평안도와 양강도 지역에 10억 원 분량 안파싸움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남북 정세는 불교계 대북사업의 잠재적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공동 대표 법승 스님은 "북한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남한과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다.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주길 바랄 뿐"이라며 "우리 정부도 향후 정치·군사적 갈등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종교·문화·복지 등 민간교류는 지속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돼 왔다. 특히 5.24조치 이후에는 거의 모든 민간 교류가 일시에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다.

상황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평불협은 1998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금강국공장을 설립하고 금강땡공장에는 밀

가루를 전량 지원해 왔으나 교류 중단 이후 공장 상태마저 파악할 수 없었다.

신창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정부 통일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해 민간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로서는 조선불교도연맹과 연락이 닿아 현지 공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민간교류가 재개돼 국수와 빵 공장도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전직장전에서 화해 대상으로 돌아선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종교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분열된 민족정신을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역할에 대해 법승 스님은 "자비와 비폭력을 추구하는 불교계가 앞장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민족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또한 남북에 폭력적인 군사적 대립을 멈출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서로 이해·수용할 때 종교평화가 옵니다"

종교모임 '사이좋게' 27일 창립

종교평화시민모임 '사이좋게' (공동대표 도법)는 8월 27일 서울 안국동 W스테이저서 창립기념 모임을 열었다. 신호승 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마중물 강연, 열린 마당에 이어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이야기' 3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마중물 강연에는 박문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박사,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오강남 경계너머이야기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방안을 모색했다.

오강남 교수는 "이웃종교를 정복 대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수용적 태도가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종교평화시민모임 '사이좋게'는 8월 27일 서울 안국동 W스테이저서 창립기념 모임을 열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 불사 '본격화'

25일 역사문화추진위 현판식 성역화 사업 부지 매입 추진

행정 절차 90% 마무리 단계 자승 스님 "임기 내 시삽할 것" 모연위원장에 혜승 스님 위촉

서울 종로 조계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성역화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역사문화추진위)'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성역화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역사문화추진위)'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개소함에 따라 조계종 성역화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정기 인사를 통해 총괄본부장에 이석삼 전 총무차장을 임명하는 등 부서 직제를 완성했다.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상평하계' 보고회에서도 성역화 사업이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현판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 중 성역화 불사에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의 성역화 사업은 33대 집행부부터 추진돼 온 중요한 사업"이



조계종은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라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행정 절차가 90%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매입 등을 올해 9월부터 시작해 34대 집행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10.27법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뤄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따르면 총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다. 견지동 45

번지 일대 토지면적 2만8577㎡ 규모에 10.27 역사교역관과 치유시설 등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설게 된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결실에서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모연위원장에 혜승 스님(前 포교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자리에서 상임부위원장 혜승 스님은 "종단이 33대와 34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성역화 불사라는 큰 임무를 세웠다"면서 "내 모든 역량을 성역화 불사의 원만 회향 위해 집중하겠다.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존치 기간, 10.27법난法 한계 요인"

진희권 교수, 27일 법난 피해 세미나서 주장

10.27 법난법은 한시법에 불과 지속 사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27법난 특별법에 명시된 법률 존치기간이 10.27법난 해결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최한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념관 건립이라는 한시적 법 규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운영과 기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일정기간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하고, 기념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군 당국은 불교계에 사과와 화해의 몸짓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봉규 한세대 교수가 '10·27법난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10·27법난피해자회 회장 성혜 스님, 이견호 전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10·27법난 당시)의 피해자 증언도 이뤄졌다.

이석삼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조계종단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정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위원장 석무공 원로부위원장 석보형 원로의원 석무경 석원정 석덕오 석우오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문화원	포교원	기획원	교육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장 석원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북총무원장 석설산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대전총무원장 석법오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해주	부원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우		
	행사부장 석원오	이전부장 석영오	바우회회장 석도현		

"세계평화와 국내안민을 위한 수륙대제"

금번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수륙대제를 통해 하오니 모든 종도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양력 10월 18일 (셋째 일요일) 10시
- 행사장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8-6 조선행안문화관
- 문의전화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010-3565-2462번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